

건강의 목적에 대한 소고(1)

Purpose of Health - Part 1

김 태 권 · 계명대학교 교수
Tae-Kwon Kim · Keimyung University

- 날개를 잃은 이카로스는 결국 지중해에 떨어져 숨을 거둔다.
- 짧고 강한 백엔드로 결승점을 따냈던 순간이 떠오른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이 분야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송형석 교수(태권도철학전공)의 적극적인 도움에 필자의 알팍한 소견을 가미하여 2-3회에 걸쳐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인간의 삶은 희랍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운명과도 같다. 이카로스는 희랍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이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다이달로스에게 명하여 크레타섬에 일단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의 궁전을 만들라고 명한다. 천신만고 끝에 궁전이 완성되지만 이 비밀이 세상으로 새나갈 것을 염려한 미노스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그 섬에 가두어 버린다.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도 다이달로스는 탈출을 궁리하였으며, 결국 그 방도를 찾아낸다.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죽음의 섬을 탈출하는 것이다. 드디어 완성된 밀납 날개를 몸에 달고 부자는 시칠리아를 향해 날아오른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아들 이카로스가 밀랍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자

그저 시칠리아로 날개를 저어가는 대신 저 밝고 눈부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신비에 대한 열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카로스는 그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카로스가 태양 가까이에 이르게 되자 그 뜨거운 열이 밀랍의 날개를 녹여버린다. 날개를 잃은 이카로스는 결국 지중해에 떨어져 숨을 거둔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심원한 의미를 담고 있다. 태양을 향해 비상하는 이카로스와 같이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설정한 이상을 향하여 비상한다. 이카로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휘휘이 저어 태양을 향해 날아가듯 우리는 건강이란 날개에 의지하여 우리의 이상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리고 태양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카로스의 비행은 밀랍날개를 조건으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시키듯이 이상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라는 비행은 건강을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한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한다. 요즘 건강에

건강 운동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금전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고, 건강관련 업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각종 건강보조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신문과 텔레비전은 아침 저녁으로 고정칼럼과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쉴새 없이 제공해주고 있다. 요즘 사회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하여 체육영역이 호경기를 맞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가운데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이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건강에 대한 바람은 우리시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다. 인간사를 통틀어 어느 시대고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퇴계 이황 선생은 잘 알려진 유학자이다. 그러나 이황 선생이 오직 유학의 연구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활인심방”이라는 건강유지를 위한 체조서를 직접 저술하기도 한 바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건강을 위한 윤리학서인 “육체의 윤리학”(Somatische Ethik)을 직접 저술하였고,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나리스(Juvenal)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소서”(Orandum Est ut sit mens sana in corpore sano)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속해 왔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까요? 어떤 이유에서 건강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할까요? 우리가 건강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은 분명 가치롭다. 아니 하나의 가치이다. 가치란 자고로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이끄는 속성을 지니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하기 때문에 건강을 하나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건강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행위를 유도할까요? 이 물음은 매우 어리석고 쓸데없는 물음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건강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칸트가 이미 천명한 “철학함”(Philosophieren)의 입장에서가 아닐지라도, 남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

그래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며 행위가 때로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3이 5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2+3이 왜 5냐고 묻지 않는다. 그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건강의 가치를 누구나 자명하게 여기듯이, 인류가 남긴 위대한 사상들은 대개 이와 같이 자명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는 철학적 태도로부터 탄생하였다. 한 예로 나무에서 익은 사과가 떨어지는 자명한 사실에 의문을 품었던 뉴우튼은 급기야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뉴우튼이 전문적인 철학자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는 물리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분명 철학자임에 틀림없다. 이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 사람들이 모두 자명한 사실로 여기는 건강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건강은 왜 가치로울까요? 사람들은 왜 그토록 건강을 갈구하는 것일까요?

건강을 가치롭게 여기는 까닭은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팔에 정맥주사 바늘을 꽂고 병원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환자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환자는 기력이 너무 쇠약해서 걷는 것은 고사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조차 없다. 따라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또한 그토록 즐겨하던 테니스게임을 할 수는 더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시 건강해지고 싶지요?” 그의 대답이 “예!” 일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왜 다시 건강해지고 싶지요?” 병원 침대에서 바라 본 바깥 광경은 그야말로 유혹 그 자체이다. 따스한 햇살 아래 개나리와 진달래가 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고 있고 저 멀리 강 한가운데로 유람선이 떠가고 있다. 고수부지에 마련된 산책로에는 화사한 봄옷차림의 사람들이 이리 저리 거닐거나, 운동복장을 하고 뛰기에 열중이다. 고개를 돌리니 입원실 문을 통해 방문객들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눈을 감으니 지난주에 친구들과 벌인 테니스경기에서 자신의 특기인 짧은 강한 백핸드로 결승점을 따냈던 순간이 떠오른다. 왜 다시 건강해지길 바라냐고? 이 물음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물음이 될 수 없다. 왜? 묻지 않아도 답변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환자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앓을 수 있길 바라며 따스한 봄볕을 맞으며 고수부지 산책로를 거닐고 싶어하고, 나무벤치에 앉아 지난주에 읽던 책을 마저 읽거나 사람들과 즐겁게 담소하길 소망하고 있고, 다시 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테니스게임을 즐기고 싶음은 구태여 캐묻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할 것이다. 그가 다시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바를 실제로 이룰 수 있기 위해서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 예술가로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창작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고, 운동선수로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싶

은 욕구를 가질 수도 있겠으며, 소설가로서 도스토옙스키처럼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정치가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고, 학자로서 훌륭한 연구업적을 많이 남기는 꿈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작업실에서 침식을 잊고 그림그리기에 몰두하거나, 육체적 고통으로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인내하며 트랙을 달리거나, 또는 밤을 꼬박 새우며 습작 연습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가득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했을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집착하고, 건강을 가치롭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자주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한 전제이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글의 제목에서 던진 물음은 완벽하게 대답 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건강을 바라는 이유에 대한 그 이상의 답변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글을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글을 끝낸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뭐 이렇게 싱거운 발표가 다 있어?”, 또는 “이거 우리를 우롱하는 거 아냐?” 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께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철학적 소고”(哲學的 小考)를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하의 논의(다음호에 계속)는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어한다”는 명제에 대한 부연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김태권 편집위원 : tkkim@kmu.ac.kr〉